

하나노미야코 공원

야마나카코 호수의 서북쪽, 넓은 하늘 아래 계절마다의 꽃이 활짝 피는 하나노미야코 공원은 서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후지산과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12월부터 1월까지의 후지산 정상으로 태양이 저무는 그 순간에만 보이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후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발 1000m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 공원은 서늘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개화하는 시기가 도쿄보다 1개월 정도 늦습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은 4월 하순에 피는 튜립입니다. 그리고 네모필라, 안개꽃, 양귀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9월에는 수확제가 개최되며 단풍은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공원에서는 매일 밤 일루미네이션 판타지움이라는 라이트 업 이벤트가 열리고 주말에는 불꽃놀이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 공원의 동쪽 끝에는 열대 식물과 사계절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천후형 온실 ‘플로럴 돔 후라라’와 폭포, 그리고 용암수형을 관찰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용암수형이란 수목이 용암류에 덮여져 타 버린 후 구멍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 공원 지하에도 용암수형이 존재합니다. 공원을 건설하던 중에 이 용암수형이 발견되자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했습니다.